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 1. 성과
  - 대중적 성과(영남대, 전여대협)
  - 조직적 성과

평가 → 평가지표와 시행이 중요  
 → 지도사, 수련회 등 중점사업이 주체적인 것.  
 → 전여대협과 지도사의 시행이 중요  
 → 전여대협에 대한 ...

(모든 것을 주체적 관점에서  
 주체를 개별개별의 활동을 돌아보고 재평가를 해봅시다.)

평가 → 전여대협, 여학생들이 평가는 이행이 중요  
 다른 대리가 있어야 한다.  
 우리 학생과 교직원들이 평가 이행이 중요하다.  
의사와 학생과 사회를 평가 이행이 중요하다.  
이행이 평가 이행이 중요하다.  
의사와 학생과 사회를 평가 이행이 중요하다!  
평가를 이행이 중요하다!  
평가를 이행이 중요하다!  
평가를 이행이 중요하다!  
평가를 이행이 중요하다!  
평가를 이행이 중요하다!

- 2. 한계
  - 주체들의 준비정도
  - 주체들의 준비정도를 높이기 위한 담보
  - 객관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주체들의 노력은 어떠한가?

평가 → 전여대협에 대한 인식  
평가를 이행이 중요하다!  
평가를 이행이 중요하다!  
평가를 이행이 중요하다!  
평가를 이행이 중요하다!  
평가를 이행이 중요하다!

3. 성과 한계의 요인

- 4. 전여대협 중점
  - 1) 8기 의장님 활동
  - 2) 전여대협 조직적 담보(지도사업)

※성과란 주체들의 발전정도에서 찾아야 한다.

- 1. 올해 전국적인 상황과 전여대협 건설의 요구성
- 2. 작년 성과를 극대화하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올해의 대책
  - 대학에서, 의장님 활동 상
  - 전여대협의 조직적 담보
  - 학교 중앙에서의 담보

평가 → 의사와 학생과 사회를 평가 이행이 중요하다!  
평가를 이행이 중요하다!  
평가를 이행이 중요하다!

모형평가

모형평가를 이행이 중요하다!  
 지도사 2주, 3주, 4주에 평가 이행이 중요하다!  
 → 평가를 이행이 중요하다!  
 → 평가를 이행이 중요하다!  
 → 평가를 이행이 중요하다!

모형평가 → 평가 이행이 중요하다!  
평가를 이행이 중요하다!  
평가를 이행이 중요하다!

평가 → 평가 이행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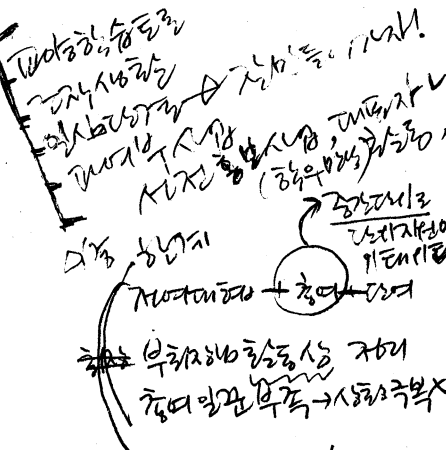
평가 → 평가 이행이 중요하다!  
 → 평가를 이행이 중요하다!

평가 → 평가 이행이 중요하다!  
 → 평가를 이행이 중요하다!

평가 → 평가 이행이 중요하다!  
 → 평가를 이행이 중요하다!

평가 → 평가 이행이 중요하다!  
 → 평가를 이행이 중요하다!

평가 → 평가 이행이 중요하다!  
 → 평가를 이행이 중요하다!



전여대협 9기 정기  
9기 총회

1. 의의와 목표

- 1) 9기 전여대협 건설
- 2) 9기 전여대협 총적 방향 토론 합의
- 3) 여학생운동의 방향성 모색

"반성폭력 9기"

2. 일시, 장소

일시 : 5월 9~10일  
장소 : 아주대학교

3. 구체적 일정

9일  
7시 여성의 정치세력화 관련한 간담회 "민주노동당 여성위원장 최현숙 님과 함께"  
10시 전여대협 의정 후보와 간담회 - 여성운동 관련 단위 고민 제출 및 토론

10일

9시 본회의  
12시 **전쟁과 여성 관련한 강연**  
향후 5,6월 사업계획 발제 토론

투쟁

반성폭력 문화제 주체 회의 진행  
조직국 모임 진행

4. 준비해야 할 것

1년 나가는 어떻게 더 보충할 것인가?

정세와 관련해서

자료집 구성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가?

예산 짜기-대의원회비는 얼마로 할까? **만원으로 하자!**

반성폭력 문화제  
→ 대의원!

9기  
정세, 정세, 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41.42.43.44.45.46.47.48.49.50.51.52.53.54.55.56.57.58.59.60.61.62.63.64.65.66.67.68.69.70.71.72.73.74.75.76.77.78.79.80.81.82.83.84.85.86.87.88.89.90.91.92.93.94.95.96.97.98.99.100.  
-반성폭력  
-자료집  
-예산

예산

반성폭력 문화제

3%

대의원회비

준비해야 할 것  
1. 예산  
2. 자료집  
3. 예산

반성폭력 문화제 관련

단위 흐름을 총화하는 판으로 어떻게 만들지  
학내 흐름이 반성폭력 운동에 대한 특별한 흐름이 없다.

문화제 판

학내 선전의식화 : 주변 설치물 관련  
-반미반전의 내용을 포함한 성폭력도

장소를 어디로 하는 게 좋을가?

한양대에서 할 수 있을까? 마땅한 장소는? 무대 설치는?

대학에서의 준비흐름을 어떻게 잡아나갈 것인가?

-반성폭력 운동의 현황 진단 : 대학별로 돌아보기 → 132에

-설문사업 진행하기 : 성폭력 경험과 그 치유에 대해

-반성폭력 운동을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여학일꾼들 내의 토론 활성화

-반성폭력 운동 대장정

대학에서 여성문화제 → 5월 중순 정도

현충원 출범식과 맞물려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전여대협 출범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포스터 제작은 언제, 어떻게? 스폰도?

재정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념품 제작과 관련해

자료집 제작과 관련해

준비단 모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공연단 구성 문제

사실 경향 2  
가상 2  
향상 ?

남자 1  
여자 " 1  
부 " 1  
주주 2

[아름다운  
감정]

경향 2  
이웃 2  
경향 2  
향상 2

~~향상 ?~~  
이웃 2  
향상 2

향상 2  
이웃 1

이웃 2  
향상 2  
향상 2  
~~향상~~  
~~향상~~

향상 2  
향상 2  
향상 2  
향상 2  
향상 2  
향상 2

향상!

angsal9399@  
hammadil.wtf

[06-538-6562]  
020000000000

016-523-6558

24

60



24

24

12

44

주주 40  
향상 47  
향상 45, 46

1683

40

주주 2, 주주 2

~~향상~~ + ~~향상~~

14

10인

부총님께

가장 중요한 것을 빼먹고 얘기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글로 전해 볼까 해서 편지를 씁니다.

부총님!  
가장 중요한 건 부총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총님의 지위와 역할에 맞게끔 활동하시란 얘기밖에 못했네요!  
그런 역할에 맞는 활동을 하게 하려면  
먼저 부총님의 마음부터 움직여야하는데 말입니다.  
그래야 확신은 가지고 그게 아니라면 신심이라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저도 이렇게 부족합니다.  
에고...

부총님!  
총여학생회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총여학생회라는 조직이 있는 게 틀렸을까요?  
전여대협은요?  
모두 틀렸을까요?  
생각해봅니다.  
틀렸으니 없애는 게 맞는 것인가 라고 말입니다.  
정말 틀린 것일까? 지금까지 한 것은 아무 것도 아닌가요?

저는 여학생운동을 4학년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학교 총여학생회 건설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표자를 할 사람이 없고  
조직적인 논의를 통해 이 사람이 어떨까 하는 추천이 있었다고 합니다.  
총여학생회 간부들이 저를 만나러 왔더군요!  
총여학생회 부회장을 할 것에 대한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그 때 과회장을 마치고 과사업에 대한 미련 때문에 한 동안 지지부진 끌다가 단대선본에 막 결합했던 때였습니다.  
그 때 잘 모르긴 했지만 조직을 건설해야한다는 것의 중요성을 느꼈었나봅니다.  
내가 결의하지 않으면 총여학생회를 건설하지 못한다는데  
그래서 결의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여학생운동 하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의했으니 여학생운동의 현황이 그리 녹록치 않았었을 테니 말이예요!  
그렇지만 저는 나름대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학생운동을 시작하면서 인생의 1대 전환기를 맞았다면  
여학생운동을 시작하면서 인생의 2대 전환기를 맞았다고 말입니다.  
지금도 어렵습니다, 여학생운동 말입니다.  
여성해방의 경로는 어떠한가 고민도 많고  
지금은 어느 것에 어떤 투쟁에 집중해야하는가 고민 많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건 여학생운동의 정당성과  
이 운동이 인간개조를 하는데 크게 복무할 것이라는 생각

더구나 자본주의로 부분별하게 성상풍화되고, 가부장적인 문화가 팽배한 이남사회를 개조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  
나는 것 그 중에서도 전여대협, 자주적 여학생운동을 하는 단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입니다.

3명만 있으면 조직을 건설하라고 합니다.

여학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어려운 과정을 거쳤지만

총여학생회로 존재하지 않는 단위는 여학생운동의 흐름을 이어나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만큼 대중조직, 조직 건설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지요!

언젠가 총여학생회라는 조직을 건설하지 않아도 될 때가 오지 않겠는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더욱 굳건하게 뭉쳐서 싸워야 하고 우리 스스로도 단련해야 합니다.

총여학생회와 총학생회 사이가 좋은 대학이 별로 없습니다.

많이 부딪치거든요

잘 풀어가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둘 다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봐요!

총학생회도 여학생운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보니 총여학생회 활동에 대해 함께 하지 않거나 문제제기 하는 경  
우가 많고, 또 여학생운동, 총여학생회 강화 발전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고

총여학생회 또한 총학생회가 잘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풀어주지 못하거나, 총학생회가 바른 지적을  
할 때에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구요.

서로 다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족하다고 탓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닙니다.

총학생회에서는 지도적 입장을 가져야 합니다. 내리먹이는 것이 아닌 지도적 입장 말입니다.

여학생운동에 대한 이해도 하려고 노력해야하며 총여학생회 운동이 학교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맞게끔 총화도 해야  
합니다.

여학생운동이 총여학생회의 활동이 학교 전반 운동을 활력 있게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영남대 여학생회 일꾼들.

배겨배겨하는 것 같으면서 원칙적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실제로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불안 하면서도 믿음이 가는 모양입니다.

조금 만 더 꼼꼼하게 지도하면 많이 발전할 것입니다.

부총님!

부총님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여대협 간부인 저, 저도 사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수도 하고 그렇지만 영남대 운동을 더 힘차고 활기차게 만들어가는데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하고 싶구요!

그것이 좋은 세상 만드는 길이고

우리들이 해야할 몫이니깐요!

보다 큰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다고 안 하고 있을 수 만은 없습니다. 어려울수록 더 많은 일을 해야 크는  
거 잘 알지 않으십니까?

부총님!

우리 잘 해 봅시다.

2003년 5월 7일 전여대협 집장 무니로부터